

[로스쿨 소식]

##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서울대학교 로스쿨 우승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2월 2일 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제4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대상을 수상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그림에도’팀에게 헌법재판소장상을 시상하였다.

시상에 앞서 이진성 재판소장은 격려사를 통해 ‘헌법은, 문제상황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 보면, 언제나 마주하게 되는 법’이라며 “앞으로 헌법적 쟁점이 감추어져 있는 사건들이 다가올 때, 오늘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나는 사건에 헌법의 생기를 불어넣는, 법조인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대회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 52개 팀(3인 1팀으로 구성)이 참가하여 예선을 통과한 8개 팀이 본선에서 변론능력을 겨뤘다.

헌법재판연구원이 한국공법학회·한국헌법학회와 공동주최한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는 헌법재판 실무능력 배양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하는 법률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상명	팀이름	소속
헌법재판소장상	그림에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금상	뜨거운 사이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은상	지향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코스모스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동상	이불 속의 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헌민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성적자기결정권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화음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우수변론상	김은열(뜨거운사이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